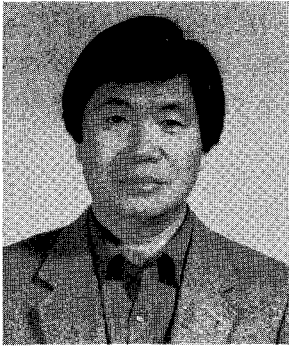


# 사슴 생산물 판매에 힘을 모으자



박 래 홍  
다래엘크사슴목장 대표

밀려오는 수입 농축산물 여파에 국내 농업과 축산업은 풍전등화가 되어가고 있다.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던 한우 시세가 하향길로 접어들고 몇년동안 호황을 누리던 낙농도 시세 폭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계속 치솟기만 하던 배합사료값이 미국의 곡물 풍작으로 안정세에 들어간것이 다행이다. 한우와 젖소를 사육하는 축산인들이 요즘 필자의 사슴목장을 많이 찾아온다. 앞으로 사슴전망은 어떠한가? 하나같이 하는 말이다. 선각자가 아니고는 누가 미래를 예언할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쉬운 이야기로 우리나라에 한의학이 존재하는 이상 녹용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될 보약중의 보약이다. 녹용이 한의학에서 꼭 필요로 한다면 녹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슴이 존재해야만 될 것이다. 필자는 지난 10월 중순경에 서울의 경동시장을 갈 일이 있어서 경동시장 부근의 한의원과 한

약방을 둘러 보았다. 경동시장 주위의 한의원과 한약방은 아마 몇백 내지 일천여곳은 될것 같았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한의원과 한약방에서는 국산녹용을 사용하는 곳이 한곳도 없다는 녹용도매상의 이야기를 듣고 맥이 풀렸었다.

최근 들어서 각 지역마다 사슴을 대량으로 사육하는 농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모양이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목장을 일만평을 설치했느니 오천평을 설치하여 엘크 2백두정도 사육할 계획이라하며 문의전화도 많이 온다.

그런데 정작 우리 양륙인들의 당면 문제인 녹용판매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누구 한 사람도 이야기를 하지 아니한다. 지금까지는 사슴을 길러 생산되는 녹용과 녹혈을 판매하려고 집안 친척을 동원하고 형제지간을 내세워 절 각 당일에는 무슨 잔칫집처럼 북적거리니 그나마 녹용을 열냥, 이십냥씩 절단하여 조금씩 판매를 하니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녹혈도 이웃과 경쟁이 되어 한잔에 팔만원 또는 육만원 심지어 모처에서는 십만원 소리까지 한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녹혈 한잔에 사오만원 받아가지고 무슨 큰 이익이 생기겠는가 말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사슴을 사육하면서 녹혈을 과다하게 채취를 하지 아니했다. 엘크 성록 일두에 이천cc 내지 이천 오백cc 정도만 녹혈을 받는다. 녹혈을 과다하게 채취하면 그 다음해에 녹용의 성장이 많이 감소가 된다. 이제 우리 양륙인들도 다른 축산인들처럼 힘을 모으고 뜻을 같이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슴의 수가 미미했으니까 그런대로 녹용을 연줄 연줄로 판매했지만 이제는 해마다 다르게 사슴의 숫자가 많아지고 양록 농가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 양록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녹용판매는 양록조합이나 협회 국산녹용중앙직판장(보람농산) 등에서 전담해야 한다. 현재 국산녹용중앙직판장이나 양록조합에서 다소 녹용을 수매하고 있지만 초보 단계에 있다. 이 양단체에서 녹용 판매를 활성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것은 우리 양록인들의 뜻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우리 양록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면 녹용직판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첫째 자금이 가장 문제이다.

우리 모든 양록인이 꽃사슴 농장은 꽃사슴 새끼 한마리씩, 엘크 농장은 엘크새끼 한마리씩 죽은셈 치고 새끼 한마리씩만 출자를 하면 무슨 일이든 다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초기에 양록을 시작하여 상당한 부를 축적한 양록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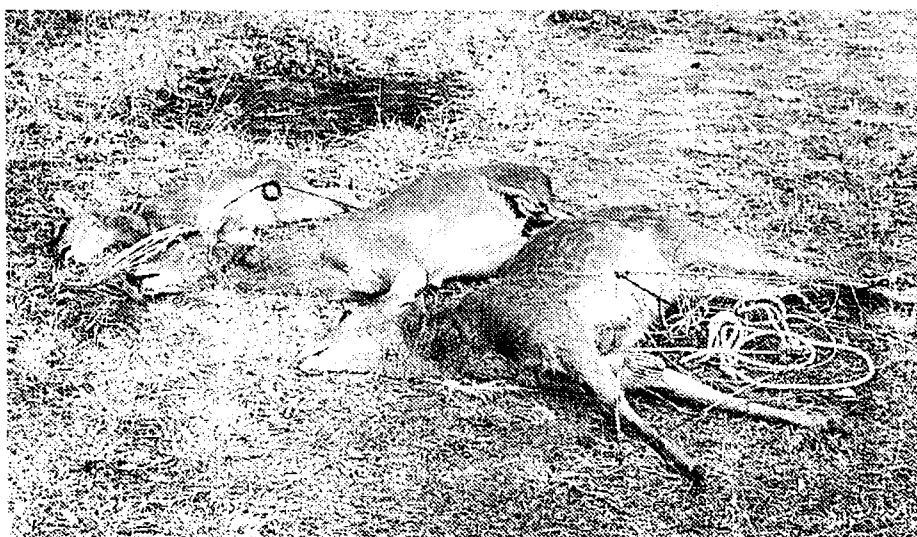
들은 차제에 양록업계에 출자를 좀 해야 한다. 전국의 1만여 양록인중 90%는 제외하고 10%로 1천여 양록인만이라도 녹용판매장 사업에 참여한다면 우리 양록의 미래는 탄탄대로를 달릴 것이다.

전국의 양록인 여러분!

아무리 자기의 사슴이 우수하고 능력이 좋은 사슴이 백마리 아니라 삼백마리가 자기 농장에 사육되고 있다해도 판로가 보장되지 않으면 울타리 밑의 부엌강아지 한마리 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지금부터라도 자각 하셔야 합니다. 양록인 여러분께서 제가 하는 말을 진정으로 받아 들이신다면 전국의 한의원과 한약방에서 「국산 녹용을 구입할 수 없느냐?」고 전화통이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97년 새해에는 전국의 양록인 여러분께서 마음을 비우고 큰 뜻을 한번 내시어 우리나라 양록사상 가장 큰 보람있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 ● 고발사진 ●



### 밀렵꾼이 죽인 소록도 사슴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방목되고 있는 1백마리 안팎의 사슴중 밀렵꾼들이 놓은 올가미에 걸려 구랍 25일 사슴 3마리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국립소록도병원 직원 윤병구씨 제공>  
(동아일보, 97년 1월 3일자에서)